

社會現象에 對한 人間學的 照明

— 靑少年犯罪의 증가와 人間回復을 위한 提言 —

李 根 燁*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教育의 目的에 對한 論議 |
| II. 狀況, 미봉책, 忘却機制 | V. 教育狀況과 自然 |
| III. 教育社會學的 接近 | VI. 자라나는 세대와 우리의 選擇 |

I. 들어가는 말

「황 무 지」¹⁾

T.S. 엘리엇

I. 死者의 埋葬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 꽃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활기없는 뿌리를 일깨운다.
차라리 겨울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였다.
忘却의 눈으로 大地를 덮고
마른 球根으로
가냘픈 生命을 키웠으니,

The Waste Land

T.S. Eliot

I. The Burial of the Dead
April is the cruelest month, breed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and, mixing
Memory and desire, stirring
Dull roots with spring rain.
Winter kept us warm, covering
Earth in forgetful snow, feeding
A little life with dried tubers.

* 本校 教育學 講師

1) T.S. Elliot, *The Waste Land*,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N.Y.: W.W. Norton & Company, Inc. 1975, p. 2527.

自然과 文明에 공히 만족치 않았던 Eliot 이 서구인의 정신적 不毛과 우리 文明의 황무지상태를 고발했던 이 시는 그 原點에서부터 바로 「荒蕪地」의 再生과 復活을 역설적으로 祈願하는 시이기에 지난 해 4월과 금년들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몇가지 「몹시도 잔인했던」現象들에 관해서 보다 진지하게 보다 根源的으로 論議하고 싶은 충동이다.

1746년부터 5, 6년 사이에 「루소」(J. J. Rousseau)는 「테레즈·루·와스루」와의 사이에 태어난 다섯 자녀를, 그의 말을 빌리면 「아주 태어난 마음으로」 고아원에 보내고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고 만년에 가서야 마침내 고녀의 생활을 하게된다는 그의 「참회록」도 독자를 놀라게 한다.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특히 상류사회)이 그러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에 서울의 어느 병원에서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자기 남편을 독살한 어느 여인의 기사를 보고 필자는 크게 놀랐다. 같은 달 대구의 어느 「디스코 클럽」에서 화재가 났을 때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책가방을 든 채로 그 곳에 들어가서 춤추다 희생되었다는 기사를 읽고 필자는 아연 실색 했다. 그리하여 그 후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極烈화된 人命輕視의 몇가지 돌발사건들을 종합해볼 때 나름대로 도달한 결론은 1965년에 세상을 떠난 T. S. 「엘리얼」에게 오늘 우리가 그의 「荒蕪地」의 「세팅」(setting)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는 서슴치 않고 그것이 London 이 아니라 바로 「서울」이라고 대답하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人間學的 教育學에서 찾으려고 하며 그 起點을 張眞鎬의 다음의 글에서 찾코저 한다.²⁾

「인간성을 다시 찾는 운동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긴급한 일 중의 으뜸가는 과제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하는 인간교육은 우리 민족교육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스스로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인격을 당위로써 존엄히 여기고 삶 속에 실천적으로 구현하고 공동체적 제도 속에서 사회규범화하는 일은 우리 민족의 장래를 탄탄히 다져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일에서 우리 문화의 기초를 찾아야 하겠다.」

Ⅱ. 狀況, 미봉책, 忘却機制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는 視角이다. 대구사건 만 하더라도 모 부처에서는 停年퇴직한 전직교사들을 교외지도 교사로 재임용해서 교외학생생활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고,³⁾ 어느 부처에서는 「클럽」출입자들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다는 것이요, 어느 부처는 「클럽」영업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며, 어느 교육단체에서는 가정교육을 강화해야하겠다는 등의 안이 제시되었다.

2) 張眞鎬, 現代社會와 人間教育, 培英社新書 86, 서울:培英社, 1981, p. 162.

cf. 吳基亨, 전인교육: 원리와 실제(상), 수업현장전인교육전서 I, 서울:교육과학사, 1983, p. 36

「인간교육은 사람의 목숨을 아끼고,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교육이다.」

3) 이는 1983년 4월의 國內日刊紙들의 社會面에 報道된 바를 종합한 典據임.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위에서 열거한 몇가지 대안들은 인간교육학의 본질을 조금이라도 연구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설득력을 주는 것이 못됨을 알 수 있고 「미봉책」임을 능히 직감할 것이며 문제는 根源的인 理解와 接近을 要하게 된다는 것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지난 일년동안 청소년 비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에 열거한 어느 대안도 실행을 보지 못했고 게다가 청소년 비행은 그 性格이 極烈化, 非情化, 日常化되어가며 그 빈도에 있어서 더욱 「活性化」되어가기에 더 이상 우리의 忘却機制에만 의존하던 종래의 惰性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대해 1984년 4월 27일 정부는 문교부에서 각부처 실무국장급으로 구성된 제 1차 청소년대책실무회의를 열고 청소년선도대응책을 협의했다.⁴⁾ 이 회의에서는 내무부에서 가) 5월 말까지 경찰의 학교주변 불량배 특별단속, 나) 비행, 우범청소년의 list 작성 집중지도, 다) 법무부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활성화 및 소년법의 취업알선 등에 힘쓰겠다는 것 등이다. 또한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根源的」으로 해결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늘리고 여가시설 등의 확충을 촉진하는 내용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⁵⁾ 그 내용은 가) 청소년 여가시설개발, 나) 청소년 국제교류, 다) 청소년연구사업지원, 라) 유해환경정화 및 사회교육시설개발, 마) 청소년대책사업추진 등이다. 이를 위해 문교부는 4일 관련 당국관계자 9명의 실무반을 구성 법률안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토록 했다. 결국 위의 두가지 대책 중의 전자는 경찰력이라는 傳來의 寶刀의 再現이요 후자의 5개항목은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비해 그 消極性이 注目된다. 그러므로 위의 두 방안은 덜 적절한 방안의 적절치 못한 순환이라고 생각된다.

Ⅲ. 教育社會學的 接近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미성년자의 일탈행위나 근래에 와서 그 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살인, 가족동반자살등 人命輕視風潮는 그 성격 및 원인규명이 어렵고도 특이하다는 것이 우리의 경우다. 이러한 사회적 병폐들은 K. 막스가 「統合的인 全人의 普遍的인 自己疎外」라는 관점에서, 또한 M. 베버가 「自由로운 자기책임적인 개인을 말소하는 合理化」라는 視角에서 본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성을, E. 뒤르켐(Durkheim)이 19세기 유럽사회를 anomie로서 이해, 이를 사회적 無規制상태라고 정의했던 이론에서 또한 「사회적 해체상태」, 따라서 사회의 규제작용과 통합작용이 이완하고, 이 두가지 작용에 의존하는 人間의 幸福이 위협받아 자살율이 증가한다는 그의 「自殺論」에서의 病理진단에도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우리가 「주변인」(marginalman)을 「두개 내지 그 이상의 異質的 諸文化的 주변에 서서 기성의 어느 文化에도

4) 東亞日報, 서울:東亞日報社, 1984, 4. 27, p. 11.

5) 東亞日報, 서울:東亞日報社, 1984, 5.5, p. 7.

충분히 귀속되지 않는 人間, 즉 內面的 갈등이 격렬하고, 정서가 불안정하며, 자기의식이 강한 성격특징과 정신구조를 소유한 자」라고 정의할 때⁶⁾ 우리의 사회적 병리들은 여기에서도 적합한 답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R. 메이건(Meighan)은 社會學者들이 다루어야 할 基本命題는 社會的「秩序의 問題」⁷⁾라고 보며, E. 뒤르켐의 社會學的 中心思想을 「個人에 대한 社會」의 優位라고 보았다.⁸⁾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는 個人의 行爲를 규제하기 위한 도덕적 질서를 요하게 된다. 따라서 그는 統制機關으로서의 國家는 教育에 無關할 수가 없으며 「教育은 근본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社會的機能」이라고 본다.⁹⁾

뒤르켐은 급격한 社會狀況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社會狀況에서의 변화된 關係를 統制할 規制가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anomie 상태가 초래된다고 본다.¹⁰⁾

우리는 'deviant', 'delinquent', 'delinquent', 또는 'criminal' 등의 用語에 봉착하게 되나 이는 나라와 상황에 따라서 그 한계가 다르다. 대체로 靑少年에게 있어서는 juvenile delinquency 요 成人에게 있어서는 adult criminality 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¹¹⁾ A. J. Reiss는 delinquency란 處罰이 수반되는 社會制度的 規範과 일치하는 行動을 유발하는 個人的, 社會的統制가 이행되지 않는데 따른 行爲라고 규정한다.¹²⁾ 따라서 그는 이미 확립된 통제, 즉 內面化된 規範과 法則이 없거나 弱화되었을 때에 非行이 발생한다고 본다. 뒤르켐과 마찬가지로 社會學者들은 遺傳과 環境의 복합적요인과 인간의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에서 anomie의 원인을 찾으려 하며 이에 대하여 現象學的 視角을 돌리게 되었다. 이상의 社會的 病理 진단에 대한 처방을 위하여 우리는 教育의 목적에 대한 論議를 요하게 된다.

IV. 教育의 目的에 대한 論議

Christoph Wulf는 教育의 場을 歷史性(histotoritat)과 現實性(wirklichkeit)에서 찾으려¹³⁾ 張眞鎬는 역사의 맥락 속에서 教育의 의미를 찾아보고 현대라고 하는 특수상황 속에서 人間教育의 위치를 밝히려 본다.¹⁴⁾ 金丁煥은 Platon의 國家教育學이나 Pestalozzi의 人間教育學이나

6) 折原 浩, 危機에 있어서의 人間과 學問, 「마지널멘의 理論과 베버像의 變貌」, 東京: 未來社, 1970, pp. 13-36, pp. 276-290.

7) Meighan, Roland, *A Sociology of Educating*, Holt, Rinehart and Winston, London, N.Y., 1981, p. 205.

8) Meighan, R. Ibid, p. 206.

9) Durkheim, E., *Education and Sociology*, Free Press, Glencoe, 1956, p. 80.

10) Durkheim, E.,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Glencoe, Illinois: The Free Press, 1933, pp. 353-373.

11) Morrish, Iv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72, p. 270.

12) Reiss, A.J., 'Delinquency as the Failure of Personal and Social Controls,' 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16, April 1951, p. 196.

13) Christoph Wulf: *Theorien und Konzepte der Erziehungswissenschaft*, Juventa Verlag, Munchen, 1967, S. 20. 李根燁, *Herbart 研究, 教育學研究*, 제21권, 제 1호 (韓國教育學會) 1983, 4, p. 52.

14) 張眞鎬, 前掛書, p. 90.

問題에서 對話를 통하여 止揚, 統一, 包攝的이며 發展的인 辨證法的 教育을 提案했으며,¹⁵⁾ Wolfdietrich Schmied-Kowarozik 은 그의 著書「辨證法的教育學」에서 辨證法的 教育學은 그 方法論에 있어서 「教育學에 關한 解釋學的 解釋과 經驗科學的 確認의 두 方法의 辨證法的 交叉」라고 규정하고 Herbart 教育學은 한편으로는 現象學的인 實踐哲學으로 理解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人間學的인 心理學을 參照로 한다고 하여¹⁶⁾ Herbart 教育學의 規範的 制限性을 克服하려고 시도했다. 한편 張眞鎬도 가) 社會의 利益을 위한 教育이나, 個人의 利益을 위한 教育이나, 나) 社會의 安定을 위한 教育이나, 혹은 個人의 自由를 위한 教育이나, 다) 小數를 위한 Elite 教育이나, 모든 사람을 위한 民主적 教育이나의 문제등 辨證法的解答을 要하며¹⁷⁾ 결국 미래의 教育은 어떻게 개인적이라는 뜻과 사회적이라는 뜻을 복합된 社會變動의 과정에서 조화시켜가며 教育의 전통적 기능과 진보적 기능을 「人間中心 價値」속에서 재구성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에 봉착된다는 것이다.¹⁸⁾ 人間中心教育에 있어서 慣習(falkways), 道德(moral), 原規(mores) 등의 規範(norm)을 內面化하는 問題에 關해서 孫鳳鎬는 그가 公明正大의 사상과 相通한다고 보는 Kant 의 定言命令, 즉 合法則性一般(Gesetzmässigkeit allgemein)¹⁹⁾ 같은 普遍的인 規範들은 推想力과 想像力과 함께 個人의 利益과 연결시켜 그 規範들의 內面化를 촉진시킬 수가 있다고 본다.²⁰⁾

V. 教育狀況과 自然

이제 教育의 目的으로서 人間教育學이 前面에 나오게 되었고 推想과 想像力을 통한 規範의 內面化에는 自然의 問題가 대두하게 된다. 張眞鎬는 現代社會의 問題를 다음과 같이 본다.²¹⁾ 1) 中心價値의 缺如²²⁾ 2) 集團間的 갈등 3) 文化遲滯²³⁾ 4) 規範의 喪失(世代間的 間隔) 5) 家族機能의 弱화 6) 非人格化 7) 空虛感. 또한 Tanner 도²⁴⁾ 實存的 次元에서 現代社會를 1) 機械的 非人間化의 時代요, 2) 人間疎外의 時代요, 3) 宗教的 統制와 影響力 消滅의 時代요, 4) 科學에 대한 환멸의 時代요 이러한 狀況에서 客觀的 合理的 思考를 통해서가 아니라 主觀的 內的 省察을 통해서 人間의 삶의 意味추구, 人間의 重要性探求, 個人의 覺醒의 必要를 논한다. 또한 社會的

15) 金丁煥, 教育의 哲學과 課題, 서울: 博英社, pp. 48-71.

16) Wolfdietrich Schmied-Kowarzik. *Dialektische Padagogik*, Kosel-Verlag, München, 1974, SS. 141-144.

17) 張眞鎬, 上掛書, p. 99.

18) 張眞鎬, 上掛書, p. 108.

19) Kant, Immanuel,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Vlg. Karl Vorländer, Hrg. von Felix Leiner, Leipzig, S. 197. 李根樺, 上掛書, p. 28.

20) 孫鳳鎬, 한국의 規範文化는 무엇인가, 月刊朝鮮 9月, 서울: 朝鮮日報社, pp. 64-73.

21) 張眞鎬, 教育과 社會, 서울: 大思出版社, 1983, pp. 105-108

22) Leoyd Allen Cook and Elaine Porsyth Cook, *A Sociological Approach In Education*, N.Y.: McGraw-Hill Book Co., 1960, p. 7.

23) William F. Ogburn, *Social Change*, N.Y.: Dell Publishing Co., Inc., 1966, p. 80, 276, 150.

24) Daniel and Laurel Tanners, *Curriculum Development*, N.Y., MaMillan Pub. Co., Inc., 1975, p. 89.

存在로서의 인간은 전체성을 통하여 조정된 동기에 의하여 완전히 조정되며 사회의 종합기체가 너무나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판을 극복, 불합리하게 보이게하거나 기술공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작동조건화에 의하여 인간의 사고를 비판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들어 정신위생학적으로²⁵⁾ 대단히 해로운「一次元の 인간 및 一次元の 사회」²⁶⁾가 존재함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人間回復을 위한 방법원리로서 個體性的의, 共同體性的의, 또한 平生教育의 관점을 제시한 張眞鎬의 견해²⁷⁾는 정확한 것이라고 보겠다. 우선 주체적 「나」를 확립해 주어야 주체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나」와 「나」의 만남은 독서의 선택과 지도를 의도화시킴으로써 생명의 충격과 삶의 감동을 경험시켜 줌으로써 그리고 사색의 기회와 분위기²⁸⁾를 마련해 줌으로써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또한 「나」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성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교육이다. Comenius 의 「에덴의 동쪽」식의 자연관이나 Rousseau 의 「假說的」인 자연관²⁹⁾을 제쳐놓고서라도 자연은 인간의 내적자연의 원형이고 인간교육의 최선의 교사다. 교육은 合自然의 원리를 따라야 하며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므로 인간은 자연 속에서 영적 공감을 느끼게 될 때 심층적 희열과 생명의 신비한 힘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인류의 위대한 교사들은 교육의 직관을 통하여 自然과의 만남에서 영혼의 속삭임을 생명으로 체험한 것이다. 현대인은 자연을 상실하고 있다.

Bollnow 는 「만남은 교육에 선행한다」(Begegnung geht vor Bildung)³⁰⁾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文化와 自然이라는 「場」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너」와 「나」와의 만남에서 위대한 실존적 결단을 체험한 예를 수없이 찾아 볼 수 있었으며 그 시각을 자연으로 돌려 그 속에서 人間性 회복의 장을 찾으려는 것이다.

Ⅵ. 자라나는 세대와 우리의 選擇

슬프게도 오늘날 자라나는 세대에게 자연이 주어져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극히 否定的이다. 자연이 주어져 있지않은 상황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청소년을 위한 광장 하나 제대로 만든적이 있는가. 그 넓은 주택단지 조성하기에 앞서 그에 상응하는 공원 하나 만든적이 있는가. 우리는 한강을 개발한다면 서도 청소년의 마음의 자연을 회복하기 위한 진정한 배려를 하고 있는가. 여의도 샛강의 배

25) Marcuse, H., Freedom and Freud's Theory of Instincts, in: Five Lectures, Beacon Press, 1970, p. 1.

26) Christoph Wulf, Theorien und Konzepte der Erziehungswissenschaft, Juventa Verla, Munchen, 1977, S. 150. Marcuse, H., Der eindimensionle Mensch, Studien zur Ideologie der fortgeschrittenen Industrialgesellschaft, Neuwied/Berlin, 1967.

27) 張眞鎬, 上掛書, p. 115 f.

28) Otto Bollnow, Pädagogik in Anthropologischen Sicht, Tamagawa Univ Press, Japan, (1971), s. 60.

29) S.J. Curtis, A Short History of Educational Ideas, University Tutorial Press, London, 1975, pp. 262-289.

30) Otto Bollnow, Ibid, S. 88.

텃공사(엄밀히 말해서 자연과피에 가깝다)에서 시민정서를 위한 대단위 공원을 고려에 넣고 있는가. 사람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수준의 구조화한 서울대공원의 개원을 보고 별로 기뻐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호소하는 자연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어 그것이 일상화되어야 하겠다는 더 높은 명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기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병폐와 우리사회의 荒蕪地化는 생활주변에서의 자연회복이 근원적인 해결책임을 인정해야 하겠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비로서 우리의 精神生活의 再生과 승리를 볼 수 있는 것이며 위대한 국민문화가 꽃을 피울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세대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을 보여왔고 우리문명의 불모의 원인을 여기에서 찾아 보았다.

그러면 우리의 권력층에는 꿈이 없었겠는가. 성장세대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행동적인 도움이 베풀어 질 때에야만 우리 사회의 현상에 나타나는 그 충격적인 사건들이 사라지리라는 생각과 그 때에는 기성세대에 「俗物」(snob)이라는 낙인이 더이상 던져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선다.

결국 우리 성장세대에는 자연이 없다. 다음의 William Wordsworth의 「5월의 시」 속에서 나의 내면을, 나의 자연을 찾고 우리 자신을 내적 성찰해 보자.

어린시절의 추억에서 나오는
영생불멸의 노래³¹⁾

윌럼 워즈워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
나의 날들 하루하루가
自然으로의 기도에 이어질 것을 !

1

일찌기 목장과 숲과 시냇물,
大地, 그리고 이세상 만물이, 나에게
天上의 빛, 꿈의 榮光과 신선함으로
웃음은 듯 보였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옛날과 같지않아—
밤이나 낮이나,
내가 어디를 둘러보아도,
내가 보았던 것들은 이제 다시는 볼길이 없노라.

10

그러니 노래하라 온갖 새들, 즐거운 노래를!
그리고 어린양들을 뒹굴게 하라.
작은 북소리에 맞추어서 !

31) William Wordsworth, *Intimations of Immortality*,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N.Y.: W. W. Norton & Company, Inc. 1975, pp. 1429-1433.

우리도 마음 속에서 너희무리에 끼리라,
 피리블며 피노는 그대들,
 오늘 그대 마음 속 깊이
 5월의 환희를 느끼는 자여!
 한때 그렇게도 빛나던 광채가 지금은
 영원히 내눈에서 사라진들 어찌리,
 草原의 빛, 꽃의 榮光의 시절을
 다시 찾을 길 없은들 어찌리;
 우리는 슬퍼하지 않으리, 차라리
 뒤에 남아있는 것에서 힘을 찾으리!
 과거에도 있었고 항상 있을 것임에
 틀림없는 原初的인 共感에서;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나라는
 慰勞의 생각에서;
 죽음을 透視하는 信仰에서;
 思索的 靜觀을 가져오는 時期에.

Ode: Intimations of Immortality
 From Recollections of Early Childhood

William Wordsworth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And I could wish my days to be
 Bound each to each by natural peity.

1

There was a time when meadow, grove, and stream,
 The earth, and every common sight,
 To me did seem
 Appareled in celestial light,
 The glory and the freshness of a dream.
 It is not now as it hath been of yore-
 Turn whereso'er I may,
 By night or day,
 The things which I have seen I now can see no more.

10

Then sing, ye Birds, sing, sing a joyous song!
 And let the young Lambs bound
 As to the tabor's sound!
 We in thought will join your throng,
 Ye that pipe and ye that play,
 Ye that through your hearts today
 Feel the gladness of the May!
 What though the radiance which was once so bright

Be now forever taken from my sight,
 Though nothing can bring back the hour
 Of splendor in the grass, of glory in the flower;
 We will grieve not, rather find
 Strength in what remains behind;
 In the primal sympathy
 Which have been must ever be;
 In the soothing thoughts that spring
 Out of human suffering;
 In years that bring the philosophic mind.

趙義淑교수님의 回甲에 즈음하여 같은 學問的 線을 따르는 後學으로서 교수님의 보다 豐盛한 삶과 보다 높은 學問的 成就를 祈願하면서.

參 考 文 獻

- 金丁煥, 教育의 哲學과 課題, 서울, 博英社, pp. 48-71.
 孫鳳鎬, 한국의 規範文化는 무엇인가, 月刊朝鮮, 서울, 朝鮮日報社, 1984, 9. pp. 64-73.
 吳基亨, 전인교육, 원리와 실제(상), 수업현장 전인교육전서 I, 서울, 교육과학사, 1983, p.36
 李根燁, *Herbart* 研究, 韓國教育學會, 教育學研究, 제21권 제 1 호, 1983, 4.
 張眞鎬, 教育和 社會, 서울: 大恩出版社, 1983.
 ———, 現代社會와 人間教育, 培英社新書 86, 서울, 培英社, 1981, p. 162
 東亞日報, 서울, 東亞日報社, 1984, 4.27, p. 11, 및 1984, 5.5, p. 7
 折原 浩, 危機에 있어서의 人間과 學問, 머지널맨의 理論과 Weber 像의 變貌, 東京, 未來社, 1970.
 Cook, Lloyd & Elaine, *A Sociological Approach to Education*, N.Y.: McGraw-Hill Book Co., 1960, p. 7.
 Curtis, S.J., *A Short History of Educational Ideas*, University Tutorial Press, London, 1975, pp. 262-289.
 Durkheim, Emile,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Glencoe, Illinois: The Free Press, 1933, pp. 353-373.
 ———, *Education and Sociology*, Glencoe, Illinois: The Free Press, 1956, p. 80.
 Elliot, T.S., *The Waste Land*,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N.Y.: W.W. Norton & Company, Inc. 6975, p. 2527.
 Marcuse, H., *Freedom and Freud's Theory of Instincts*, in: Five Lectures, N.Y. Beacon Press, 1970, p. 1.
 Meighan, Roland, *A Sociology of Education*, Holt, Renhart and Winston, London, N.Y., 1981, p. 200.
 Morrish, Iv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72, p. 270.
 Ogburn, William F., *Social Change*, N.Y.: Dell Publishing Co., Inc., 1966, p. 80, 150, 276.
 Tanners, Daniel & Laurel, *Curriculum Development*, N.Y.,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5, p. 89.
 Reiss, A.J., *Delinquency as the Failure of Personal and Social Controls*, 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16, April, 1951, p. 196.

Wordsworth, *Intimations of Immortality*,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N.Y.: W.W. Norton & Company, Inc. 1975. pp. 1429-1433.

Bollnow, Otto, F. *Padagogik in Anthropologischen Sicht*, Tamagawa Univ. Press, Japan, 1971, S. 60.

Kant, Immanuel, *Grundlegung zur Metaphysi der Sitten*, Vlg. Karl Vorlader, Hrg. von Felix Leiner, Leipzig, S. 197.

Marcuse, H., *Der Eindimensionale Mensch*, Studien zur Ideologie der fortgeschrittenen Industriegesellschaft, Neuwied/Berlin, 1967.

Schmied-Kowarzik, *Dialektische Padagogik*, München: Kösel-Verlag, S. 64.

Wulf, Christoph, *Theorien und Konzepte der Erziehungswissenschaft*, München, Juventa Verlag, 1977, S. 22.